

“교차하는 다중적 생각들 펼쳐냈죠”

허진 교수 ‘기억의 다중적 해석’ 주제 30번째 개인전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통인화랑서 최신작 15점 선봬

예술가의 기억은 일반인과 다르다. 예민한 시각으로 접하는 일련의 사건과 기억은 또다른 관점으로 해석돼 풀이된다.

전남대학교 허진 교수가 ‘기억의 다중적 해석’을 주제로 서울 인사동 통인화랑에서 30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결코 단편적이지 않은 작가의 기억, 사람과 사물 등 머릿 속을 떠도는 대상을 다중적 회화로 풀어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허 교수의 최신작 15점이 선보인다.

그동안 ‘유목동물+인간-문명’ 시리즈를 선보이며 자연과의 상생과 조화를 강조해 왔던 허 교수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신작들로 변화를 꾀했다. 그 변화는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삽화 연작을 통해 확인된다.

이번 전시에 걸린 허 교수의 삽화 연작 5점은 최효찬의 자녀교육 에세이집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 (멘토프레스 간)의 각 장에 오리지널 삽화로 수록된 것들이다.

허 교수는 책을 읽고 지나온 삶과 자녀에 대한 교육 등을 되돌아보며 1년여의 시간 동안 작품을 구상하고 작업했다. 그만의 추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기억들을 현재 삶으로 끌어와 인간 본성의 감정을 재구성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2017년 세종갤러리 전시 이후 꼭 2년만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화업 31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작가의 다중적 기억을 인문학적 입장에서 재해석하면서 회화적으로 평면에 풀어냈다고 하면 어려울까요? 기억의 축적은 곧 역사이며, 또한 역사는 개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근대 남화의 대가인 남농 허건의 장손이자 남종화의 시조인 소치 허련의 고조 손으로 윤림산방의 화맥을 5대째 이어오며 독자적인 현대 한국화를 창조해 오고 있는 그의 인간적 고뇌도 엿보인다.

“남종화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 현대 4차 산업에 대한 관심 등 머릿 속에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

는 늘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죠. 동양화는 함축적인데 서양화는 펼쳐 보이거든요. 정반대인 거죠. 전통을 이어받으며 현대에 관심을 갖다 보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작품들은 머리를 떠도는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낚두리해 펼쳐낸 것들이

니다.”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그동안 29차례의 개인전과 460여회의 그룹·기획 전시에 참여했다.

문의 02-733-4867. /이연수 기자

서동형씨, 서석전통한시 지상 백일장 장원 ‘회고 5·18 민주화 운동’ 주제 전국서 20명 참가

(사)서석전통한시보존회(이사장민영순)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해 ‘제1회 서석전통한시 지상 백일장’을 실시했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해 한시를 통해 5·18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한국인뿐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이번 백일장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2019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및동아리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이번 백일장의 시제는 ‘회고 5·18 민주화 운동(回顧 五·一八 民主化 運動)’이었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다. 장원은 서동형씨(충북 충주)가, 차상에 이수필씨(경북 예천), 차하에 이정재씨(서울)가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세원 (사)서석전통한시보존회 사무



제1회 서석전통한시백일장 장원 서동형씨의 한시.

국장은 “이번 한시 백일장은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의 정신을 되새기고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공유해 민주화에 대한 가치를 계승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고 전했다.

이번 ‘제1회 서석전통한시 지상 백일장’에 참가한 작품은 6월 중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제4회 금호시니어콘서트.

제5회 금호시니어콘서트 연주자 모집 만 40세 이상 아마추어 대상 내달 4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이 오는 7월 4일까지 제5회 금호시니어콘서트 연주자를 모집한다.

금호시니어콘서트는 유·스퀘어 문화관이 만 40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의 연주 활동을 지원하고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부문에 독주와 합주(10인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합주는 연주자 전원이 만40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연주자는 오는 9월 3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제5회 금호시니어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된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 있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다”며 “신청자들은 주부, 회사원, 교사,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과 사연을 가진 연주자들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들이 모여 행복하게 연주회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스퀘어 문화관은 금호시니어콘서트외에도 만 26세 이하의 음악 전공자를 위한 금호시니어콘서트와 만 65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한 금호실버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360-8432. /이보람 기자

‘나는 드영 Artist’ 어린이 뮤지엄 교육 내달 5일까지 접수

드영미술관에서는 어린이 뮤지엄 교육 ‘나는 드영 Artist’를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한다.

기간 내 총 5회 동안 초등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감상) 및 실기(회화)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7월 5일까지(회당 10명) 접수를 받는다.

이번 미술교육 강좌에서는 모네, 반 고흐, 마티스 등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조형세계에 대해 감상하고, 어린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제작해 보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23-6515.
/이연수 기자

위드 콘서트 ‘3인 3색의 음악선물’

임소엽·김선아·강소라... 29일 광산문화회관

오카리니스트 임소엽, 피아니스트 김선아, 소프라노 강소라가 오는 29일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위드(with)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언젠가는 세 사람의 색깔을 하나로 담아내고자 했던 뜻을 모아 준비했다. 단순한 앙상블의 구성이 아닌 ‘따로 또 같이’를 모티브로 3인의 강렬한 세 가지 색과 서로의 울림을 통한 어우러짐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위드 콘서트’는 지역에서 문화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음악선물을 전하며 서로의 음악적 성향을 알게 된 세 사람이 모여,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자 ‘3인 3색의 음악 선물’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공연은 1부에서는 3인의 앙상블 ‘꽃밭에서’와 1곡과 광산오카리니앙상블의 공연 등을 선보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SWA 원당산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카리나 협연 ‘El condor pasa’, 소프라노 협연 ‘Never enough’, 피아노 협연 ‘Frontier’을 공연하고, 특별게스트로 넬라루체 남성 트리오가 참여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을 노래한다.

‘함께’가 콘셉트인 ‘위드 콘서트’는 오카리니스트 임소엽이 아직 생활악기라는 개념이 더욱 큰 오카리나를 클래식 저변으로 끌어오기 위해 기획한 공연이라는 데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 2016년에는 임소엽 위드 콘서트를 진행, 오카리나와 오케스트라 협연을 선보이며 오카리나와 다른 악기들의 앙상블과 독주 악기로



김선아·임소엽·강소라(왼쪽부터)

오카리나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임소엽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음악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안식을 얻었다. 무대를 통해 3인의 강렬한 세 가지 색과 울림을 통한 어우러짐으로 아름다운 음악 선물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관람료 1만원. /이보람 기자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7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